

# 제국주의에 대한 ‘세기적 응시’와 우주 근본에 대한 새로운 창발 한숨같은 정한과 깊이가 있는 이야기, 현실도피와 욕망의 정직한 배설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새로운 우주》, 《창조자 피카소》, 《1215마그나카르타의 해》, 《바람의 노래》,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광미잡담》...

지난 한 달간 언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책은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등이다.

서울시 문화재과 학예연구사인 권혁희 씨가 그동안 모은 일제 식민지 시절 사진 가운데 300여 장을 추려 책으로 엮은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는 그 중에서도 중앙 일간지의 시선이 집중된 서물이다. 민음사가 제정한 ‘2005 올해의 논픽션상’ 수상작을 단행본으로 엮은 이 책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진엽서들에 드러난 시선의 해체가 주된 과업이지만 그를 둘러싼 인문학적 지식 또한 만만치 않다”고 찬평을 가했다.

<서울신문>은 책에 대해 “엽서 속 그림들은 촬영자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인 동시에, 제국주의적 시각이 담긴 ‘세기적 응시’의 결과물”이라며 “당시 사진엽서는 신문, 잡지, 서적 등과 더불어 제국주의를 재현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매체였음을 상기했다. 또 “책은 사진엽서가 하나의 ‘문화적 유물’이란 전제 아래 그 유물에 은연중 혹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데올로기와 권력을 추적한다”며 “카메라가 담은 풍경 중 제국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것은 단연 식민지인들의 인종과 풍속을 부각시킨 이미지들이었다”고 해석했다.

6월 중순을 넘기면서 《새로운 우주》가 새롭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다. <한겨레>는 6월 17일자 지면을 통해 “이 책은 궁극적 진리와 환원주의에 대한 지나친 신념을 녹여줄 ‘중화제’ 구실을 할 만하다”고 단언했다.

<한겨레>는 그 중 “책 곳곳에서 거침없는 자유분방으로 이름

난 러플린 특유의 시각과 경험”에 흥미를 보였다. “그는 나노기술이 원자·분자를 조립해 만든 탄소나노튜브, 나노콩각지, 나노로프 등 거의 응용 가능성이 없는 갖가지 ‘재미있는 나노 장식품들’만을 잔뜩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오늘날 과학자들은 근본 법칙을 찾느라고 실마리가 될 만한 현상이나 실험결과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며 “저자 러플린은 이 모든 얘기를 가족 피크닉과 같은 생활 속의 작은 에피소드로 시작해 풀어나간다”고 했다. 이 신문은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주재료는 최신 과학의 결과물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장난스럽게 그린 그의 일러스트를 보면서 참을성 있게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분명 독자들의 머릿속에도 그가 말하는 ‘새로운 우주’가 ‘창발’ 되지 않겠는가”고 기대했다.

한편 <한겨레>는 책 《창조자 피카소》에 대해 “그동안의 피카소 전기가 너무 별거벗겨졌다면 이 전기는 인간의 웃을 입혔달까”고 반문했다. “페르낭드, 에바, 올라, 마리 테리스, 도라 마르, 프랑수아즈, 자클린, 그리고 사이사이에 여인들로 그의 삶과 예술이 점철된 만큼 굳이 작품으로 본 여성편력기로 읽힐 수도 있겠다”는 게 이 신문의 해석이다.

<문화일보>는 “저자는 ‘나에게 그림이란 파괴의 종합’이라고 했던 피카소 말을 인용하며 평생 자신의 넘치는 재기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피카소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적고 있다”고 소개했다.

《1215 마그나카르타의 해》 역시 언론의 주목을 적지 않게 받은 책. 6월 17일자 <문화일보>는 “마그나카르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는 책은, 당시 영국인의 삶에 대해 상세히 추적하고 있다"며 "궁정, 도시, 시골에서의 생활을 일일이 고찰하고 있으며, 교육 종교 문학에서부터 형벌과 법제도, 마상 시합과 사냥에 이르기까지 대현장과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미희의 장편소설 《바람의 노래》도 중요 일간지의 관심을 모은 책이다. <세계일보>는 "현대판 남사당패라 할 만한 떠돌이 옛장수 공연단의 애환을 웅숭깊게 그려낸 작품"임을 상기시키며 "화려한 수사나 극적인 서사를 기대하는 이들이라면 굳이 이 소설을 찾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생의 마디마디에 스며든 한숨 같은 정함과 그 깊이를 곱씹어가며 고단한 일상을 위로받고 싶은 이들이라면 베갯머리에 놓아두고 잠들기 전 조금씩 읽어나가도 좋다"고 권했다.

<한겨레>는 "한수산 씨의 출세작 <부초>를 떠오르게 하는 구도 속에 은씨 특유의 뚝심과 정공법이 빛나는 작품"이라고 했으며, <경향신문>은 "이 소설을 술로 환원한다면 속을 싸하게 훑어 내리는 찬 소주가 제격"이라고 묘사했다. 그야말로 "한 입에 쏙 털어놓고 카~하고 미간을 모아야 품이 나는 대포집의 25도짜리 소주여야 하고, 무쇠 술뚜껑 위에서 자글자글 익어가는 삼겹살이나 쉬어빠진 김치에 맞춤형 술이 아니고선 은미희의 이번 소설과 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를 예방하고 제어할 10가지 방법이 특히 눈에 띄는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의 매력에 대해 <동아일보>는 "신경과학, 진화론 등 과학적인 눈으로 중요를 들여다보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신문은 "그러나 저자가 내세운 중요 예방책을 보면 아쉬움이 남으며, 너무 원론적인 '모범답안'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를 달았다.

<한겨레>는 "이 책은 우리와 타인을 나누는 중요가 인간 진화의 결과물임을 추적한다"며 "지난 2001년 출간된 《사랑을 위한 과학》(토머스 루이스 등 지음)은 중요와 정반대의 인간 본성인 '사랑'의 감정이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루는 과학서인데 비해 이 책은 오히려 신뢰질을 공박한다"고 했다. 즉 "이성을 좇고 감성을 경시하는 현대 문화를 '신뢰질과 굳게 결탁한 문화'라며 이는 '행복을 가로막고 삶의 본질과 의미를 왜곡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꼬집고 있다"는 것이다.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은 한 달 동안 모든 일간지들이 빠짐 없이 다룬 책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책은 신데렐라 이야기에 묻혀 있는 여러 암호를 풀어내기 위한 지적 여행기"라는 <경향신문>의 표현은 대부분 서평의 시각을 대신하는 셈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광수 연세대 교수의 《광마잡담》과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는 당연히 출판 담당지들에게도 뉴스밸류 1호감이었다. 각 신문은 서평에 앞서 출판을 즈음한

간담회에서 보인 마 교수의 '튀는' 언행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신문>은 "'실감 있는' 거짓말을 하고자 내 이름을 쓴 1인칭 소설로 구성했다"는 마 교수의 언급과 함께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원래 '설사'라는 뜻이듯이 소설은 교훈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도피, 욕망의 정직한 배설이 되어야 한다"는 특유의 문학관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또 함께 낸 에세이집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에 대해 "책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경구를 뒤집어, '자유 없는 진리'보다 '진리 없는 자유'를 택하겠다는 마씨의 열망을 담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중앙 일간지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수용소의 노래》, 《나의 디자인 이야기》, 《멜컴X vs 마틴 루터킹》, 《한국사로 읽는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 《성수의 결사단》, 《꽃가치 피어 매혹케하라》, 《세금 이야기》, 《폐인과 동인녀의 정신분석》, 《카스테라》, 《정치인을 위한 변명》, 《아시아 경제, 공존의 모색》,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진실, 광장에 서다》, 《식물의 역사와 신화》, 《장국영이 죽었다고?》, 《교양으로 읽어야 할 절대지식(세계명작 편)》, 《전쟁과 학교》, 《중국의 문화 지리를 읽는다》, 《런치 타임 경제학》, 《미래를 여는 역사》, 《그 많던 지식인들은 어디로 갔는가》, 《권력과 광기》, 《나는 유명 작가입니다》, 《우리 근대 미술 뒷이야기》, 《이노베이터》, 《사라진 비문을 찾아서》, 《중국의 세계전략》, 《꽃들의 웃음판》, 《상대성 이론 그 후 100년》 등에 주목했다. **출판저널**

<출판저널> 편집부